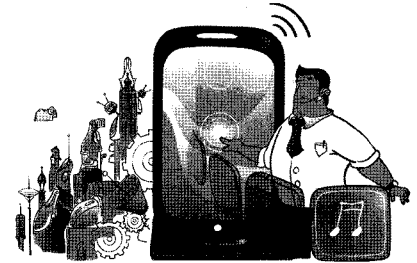


## 모바일융합산업협의회 발족



지식경제부는 「모바일융합산업협의회」를 발족하고, 4월 9일(금) 상암동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(이하 KEA)에서 정만기 정보통신산업정책관 주재로 휴대폰 3사, 이통 3사, 인터넷포털, 부품·SW·정보보호 등 모바일 각 분야 업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.

동 협의회는 지난달 19일 개최된 ‘모바일 업계간담회’에서 스마트폰 대응을 위해 국내 모바일 업계간 소통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집중 제기되면서 그 후속조치로 추진되었다.

정만기 국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가 이처럼 스마트폰 대처가 늦게 된 이유는 최근 모바일 산업의 가장 큰 트렌드인 ‘개방과 협력’의 부족이라며, 창의적인 사고를 과감하게 수용할 수 있는 개방적인 자세와 각자의 전문분야와 역할을 인정하고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.

그런 의미에서 동 협의회가 국내 모바일 업계의 개방과 협력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것이다. 특히, 모바일 업계 내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통해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‘생태계 경쟁력’을 갖추어 나가야 한다고 제시하였다.

또한, 국내 생산량 감소와 단가 하락으로 1분기에

전년보다 11.4%나 감소한 모바일 수출을 회복하는 방안과 지속적인 해외진출전략을 모색하는 역할도 동 협의회에 있다며, 경쟁력있는 응용서비스와 비즈니스모델을 발굴하여 관련 모바일 생태계(Ecosystem) 전체가 해외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다.

한편, 이어 발표된 KEA의 ‘모바일융합산업협의회 운영방안’에서는 향후 협의회가 업체간에, 그리고 업계와 정부간에 해결해야 할 각종 모바일 현안을 발굴하고 소통의 장을 제공할 것임을 밝혔다.

또한, 현재 여러 부처에서 경쟁적으로 내놓는 모바일 관련 정책들에 대해 ‘WIPI 의무화’와 같은 정책적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계의 즉각적인 피드백 창구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적극 활용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.

아울러, 국내 기업들의 새로운 모바일 비즈니스 모델 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내외 최신 기술 및 시장동향 정보를 제공하고, 모바일 관련 유망 제품을 발굴하여 수출상담회 등을 통해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글로벌 스타로 육성할 계획임을 밝혔다.

4월 중 회장사 등 운영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회원사를 통해 현안 사항을 발굴하여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.